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충돌사고와 함께 불이 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 아시아나기 美공항 착륙사고

307명 탑승...중국인 2명 사망, 181명 부상  
테러 가능성 없어...차대통령 '깊은 위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 오전 11시 27분(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착륙 중 지상과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관련기사 2·6·9면> 이 사고로 중국인 탑승객 2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미국 관계 당국 등이 밝혔다. 입원 승객 중 5명은 중태여서 인명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214편은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비행기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았고 이 과정에서 뒷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사고기에는 한국인 77명을 포함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모두 307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은 기체가 완전히 정지한 뒤 비교적 침착하게 비상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기체결함, 조종사 실수 등 모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테러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관계 기관은 우리 국토교통부와 이번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날 낮 1시(한국시간) 국토부와 외교부 관계자, 항공안전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대책반이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출발했다. 국토부 측은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조사기간

은 통상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면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예기치 못한 이번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탑승객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백관동도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상자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참모진에게 조사과정을 살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장거리용 제트항공기로 12시간 이상의 대륙간 장거리 비행에 주로 이용된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지방공약 가계부' 광주·전남 14개 모두 반영됐지만

## 재원 대책없어 임기내 실현 미지수

민자 의존·지자체 재원부담...신규사업 축소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전남 14개 지역 대선공약 사업이 모두 반영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지역공약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에 불리한 인구조등을 기준으로 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재검토하도록 하는가 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해서도 이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 제2순환도로처럼 민간투자자에 의존토록 해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전국 17개 시·도의 106개 지역공약과 이를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이며, 공약사업은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대전·경북·제주(각 13개), 부산·강원(각 12개), 광주·전남·인천(각 11개), 대구·충북·충남/세종(각 10개), 서울/경기·울산·전북(각 9개) 순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신규사업 제정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예산에 반영된다. 이행계획에 반영된 공약의 지역공약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등 7개다. 전남의 공약은 ▲KTX 송정~목포 건설사업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전남~경남 한려대교 건설 ▲광양 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체질 관광명소 구축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등 7개다. 정부는 전국 167개 공약 사업 중 96개 신규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국비·지방비·민자 포함해 12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히 전남~경남간 한려대교와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96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한 후 추진 여부나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기본 계획 수립, 설계, 착공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요 비용 대부분이 다음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타당성 조사만

하다가 사업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지역공약 사업 추진시 자치단체의 재원부담액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무상보육 등 복지재원 증가로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 등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선언적 이행의지만 있는 말뿐인 공약 가계부"라며 "재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규사업의 추진 근거인 타당성 조사는 인구를 감안한 경제성을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이는 지역의 불균형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를 해야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 장기적 발전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지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 남북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北, 제품 반출 허용·통행 보장...10일 입주기업 방북·재발방지 후속회담

남북은 7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준비가 되는데 따라 기업들을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또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 기업 관계자 등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 정비를 진행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양측은 남측 기업이 완제품·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철차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 안전과 차량의 통행·통신을 보장하기로 했다. 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문제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남측 양측은 이날 오전 관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간 실무회담 종료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종료 뒤 관문점 우리측 '자유의 집'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시

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95일만에 정상화 수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6일 낮부터 16시간에 걸쳐 2번의 전체회의와 10번의 수석대표 접촉 등 마라톤협상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 시급한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기업들의 설비정점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 생산된 제품은 반출하되 원부자재는 불필요하게 반출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단장은 "이번 합의가 개성공단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7월호

키농샤  
자연과 문화로 힐링  
크라우드 펀딩 희망을 본다

커버스토리  
올 여름 힐링이 필요한 당신  
걷기, 명상, 문화충전 어때요?  
제주올레길, 광주전남 치유의 길,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생생한 체험의 현장과 활용 정보 수록

기록특집  
티끌모아 예술 투자  
크라우드 펀딩에서 희망을 본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와 가능성 진단  
착한 자본이 완성한 소록도 변화 프로젝트, 영화 26년

스페셜 인터뷰  
치유의 길, 희망 개척한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올레길 뒤편은 자연과 길에서 배운 삶의 의미

마주앉은 책과 삶  
사진작가 배병우  
세계가 감탄한 빛 그림 '소나무'  
치밀한 작가정신을 만나다

이달의 아티스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이다"

글로벌 아트  
떠오르는 미술시장, 홍콩을 가다  
아트바젤 홍콩에서 전망하는 아시아 미술

여행작가 노준호와 떠나는 '우리 땅 속의 여행'  
역사, 자연, 사람, 사할 끝없는 해남의 매력  
문화동행, 편편클럽  
자부심을 연주하는  
정음문화원 수제천 연주단

행복한 걸력터  
30년 동안 옛 책 10만여 점 수집해 온  
화봉문고 '여승구' 대표의 각별한 고서 사랑

스타 테이스트  
광주출신 '국민 첫사랑' 수지와 첫 테이스트  
"내년에 스무살, 하고 싶은 것 많아요"